

북원당(北圓堂)

국보

팔각형의 아름다운 외관이 특징인 북원당은 고후쿠지 절을 건설한 후지와라노 후히토(659~720년)의 사망 1주기에 맞춰 721년에 건설되었습니다. 최초의 건물은 1049년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재건한 건물도 1180년 다이랴노 시게히라(1158~1185년)의 군대가 벌인 난토 야키우치[‘난토(南都: 남쪽의 도읍)’란 호쿠토(北都: 북쪽의 도읍) 즉, 교토와 대비하여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, 야키우치(燒討)는 화공을 의미]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. 현재의 건물은 1210년에 재건된 것입니다. 고후쿠지 절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북원당에는 7구의 국보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

북원당 불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본존인 미륵여래입니다. 그의 양 옆에는 무착과 세친이라는 두 승려의상이 서 있습니다. 3구 모두 1212년에 조성된 것으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제작자 중 한 명인 운케이(1224년 사망)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. 수미단에는 무로마치 시대(1336~1573년)에 만들어진 법원림보살상과 대묘상보살상, 사천왕(증장천, 다문천, 지국천, 광목천)상도 안치되어 있습니다. 사천왕상은 791년에 조성된 것으로, 원형은 나무를 대강 조각해 만들고 그 위에 삼베를 붙여 옷칠을 입히는 목심건칠조라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. 과장된 얼굴 표정으로 유명한데, 특히 지국천은 부풀어오른 눈이 얼굴에서 튀어나올 듯이 표현되어 있어 유머러스한 모습입니다. 사천왕상은 미륵여래상, 무착상, 세친상과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